

“여수 국가산단 지역 기여도 높여야”

작년 지방세 비율, 국세의 1.3% 불과…고용창출도 미흡

市 “지방세 비율 상향을”…순천시도 오염피해 소송 검토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순천시가 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이 납부하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환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돼 있는 울산광역시, 충남 서산시와 공동으로 국가산단단지에 부과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글자로 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여수시는 이 요구안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위치한 이들 지역 주민들은 석유화학단지가 배출하는 대기와 수질공해, 악취 등의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의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환경피해 복구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자자체에서 떠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지난해 3조9천129억원의 국세를 납부한 반면 지방세 부과액은 529억원에 불과했으며 장치산업 특성상 광활한 공장 용지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 매년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물동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 교통사고 위험 상존, 대기수질 토양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여수산단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매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

했다.
순천시도 인근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단지로 인해 대기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수산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15~20㏊ 가량 펼쳐져 있는 여수산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순천까지 날아들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산단과 인접해 있는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6월 신도심인 연향동 시립도서관 옥상에 대기오염망을 설치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자료를 구도심인 장천동 시청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수치와 비교하고 있다.

시는 1차로 여수산단 입주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큰 GS칼텍스 등을 소송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정에서 대기오염 피해 사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3~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여수 오동도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조각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동도에는 2008 국제아트페스티벌 일환으로 30여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됐다.

〈여수시 제공〉

30년된 여수수협 위판장 신축키로

2011년까지 290억 들여 3층 규모…회센터도 들어서

30년 전 건립된 여수수협 위판장이 새롭게 탈바꿈된다.

여수시는 여수수협 위판장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 설계비 1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봉산동에 있는 수협 위판장 건물은 지난 1978년 지어져 낡은 데다 비위생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여수시와 수협 등은 위판장 건물을 새로 건축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

구해왔다.

여수수협 위판장은 오는 2011년까지 29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1층에는 수협 위판장, 2·3층에는 회센터 등이 들어선다.

특히 수협 위판장 옆에 오는 2011년까지 국동 다기능어항이 조성되면 국동과 봉산동 등 구도심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향토·민속자료 92점 수집

여산군지·여수읍지 등

여수시가 향토 및 민속자료 수집에 나서 지금까지 92점의 향토 및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 중 90점은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했고 2점은 기증 받았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 중에는 1899년 간행된 여산(돌산)군지 원본, 1902년 간행된 여수읍지 원본을 비롯하여 1670년에 발급된 준호구, 1800년대의 소라면 호구단자와 호적표 등 조선시대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호구단자에는 본인 또는 직계 직업란에 ‘수군관(水軍官),



영(營) 수군관(水軍官), 목관(牧監官)’이라는 관직명이 기록된 자료가 발견돼 지역 출신의 상당수가 좌수영이나 목장터에 근무했던 관리였음이 밝혀졌다. 또 호적 관련 문서에서는 당시 면의 명칭과 마을명이 기록돼 있어 지역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오동도서 조각 작품 감상하세요”

〈3개버스회사 100억원대〉

오현섭 여수시장 “시민합의로 ‘준공영제’ 시행 할 것”

오현섭 여수시장은 3일 “여수 시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내 버스 회사들의 부채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준공영제가 성공할 수 있다”며 “버스회사들도 준공 영제 시행 전에 부채 청산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버스회사 측에 부채 청산을 주문한 것은 버스회사들이 시내 철도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조속한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현재 오동운수와 동광교통, 여수여객 등 3개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시내버

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경우 무리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시내버스 과업이 철회된 데 대해 “회사와 운수 종사자들이 공익을 위한 대의의 차로 양보하고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민에게 더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중교통으로 발전해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농업경영인 구례군연합회 가족 한마당



한국농업경영인 구례군연합회 전진대회가 지난 2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사진)

한농연연합회(회장 조현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이상인 도회장, 문대원 부군수, 서은식 군의회 부의장,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 전달, 우수 농업인 표창, 체육행사 및 화합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농업경영인 가족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족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부장 김동호 국장
주각종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충호 차장
김온중 기자

/ 새 얼굴 /

“인성·실력 갖춘 학생 육성하겠다”

김종숙 순천 교육장

“인성과 학력의 조화로 감동을 주는 순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57) 신입 순천교육청 교육장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 출신인 김 교육장은 광주 교육대학과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광양 국제물류대학원생 네덜란드 본교서 수업

해운물류학 석사 과정 17명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 위치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대학원생들이 네덜란드로 로데르담 본교 국제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의 해운물류학 석사학위 과정생 17명(내국인 10명, 외국인 7명)이 1개월

간 로데르담에서 공부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들은 광양 캠퍼스에서 이수한 ‘화물관리론(Cargo Operation Management)’ 시험을 본교에서 치르고 ‘항만설계 및 관리(Port Design & Management)’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비롯해 로데르담과 앤트워프 등 네덜란드의 선진 해운학관 시설을 견학한다.

/체증기자 chae@kwangju.co.kr

순천시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순균 시 지부장은 “사랑의 쌀 나누기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쌀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부장 김동호 국장
주각종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충호 차장
김온중 기자

광양시립경매(주) 대중법률경매(주)

T. 062)227-6666
011-646-2226

사원모집

투자 및 투자를 일하실 분

공인중개사 현업

단위:㎡/평원

부동산 경매계의 자부심!

단위:㎡/평원

<div data-bbox="31 1094